

한방식물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제품의 개발

박중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jcpark@sunchon.ac.kr*)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방약물학 전문서인 신농본초경에는 365종 한약을 上藥 120종, 中藥 120종, 下藥 125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중 상약은 생명을 복돋워 주고 무독하며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서 다량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하여도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약이다. 국화, 인삼, 천문동, 감초, 견지황, 맥문동, 영지, 황기, 결명자, 오미자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선조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 허준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광해군 시절에 간행한 한의약서적이다.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과 목록 2권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한약 관련 책은 탕액편으로서 약으로 쓰는 물을 처음에 소개하며 그외 흙, 곡식, 과일, 채소, 풀, 나무 등의 한약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선말 한방서적을 백성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 당대의 명의이었던 황도연이 동의보감을 근본으로 하여 각종 질환의 치료법 중 유용한 것을 초록한 방약합편에는 한방약 500여종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산초, 방초, 습초, 독초, 만초, 수초, 향목, 교목, 관목, 훈신채, 유효채 등 44종류로 한약을 분류해 놓고 있다. 이같은 한의약 문헌을 통해 의약품, 기능성식품 및 피부관련 제품으로 개발가능한 한방식물 소재를 발표하고 개발한 기능성제품도 함께 소개한다.